

# 전남도 올 친환경비료 59만5000t 공급했다

### 토양 개량제 등 440억원 투입 내년 비료 내달 8일까지 신청 지역업체 비료 구매 추가 지원

전남도가 올해 친환경비료 59만5000t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기질비료(48만4000t), 토양 개량제(11만1000t)로, 각각 247억원과 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남도는 17일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

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내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업'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희망한 농업 경영체는 내년 사용할 비료의 종류와 공급시기, 공급업체-물량 등을 농지소재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다음달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을 위해 유기질비료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 3종과 부속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등 2종을 20kg당 700원에서 1000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역업체가 생산한 비료를 구매한 경우 일부 시·군에서는 포대당 200원 이상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역업체 제품이 아닌 타지역 제품을 구매한 경우 내년 시군 자체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청 시 읍면동을 통해 지원제도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이번 모집기간에 규산과 석회,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신청도 받는다. 2019년부터 2021년도분 공급물량을 지난 2019년 일괄 신청 받았으나 최근 경작지 정보가 변경됐거나 새로 신청을 희망한 농업인은 추가·변경 접수가 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100% 무상 지원된다.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경작농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변경·추가 등록을 해야 한다. 이정의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의 역외유출 차단,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기질비료와 굴 패각을 이용한 패화석 비료 등은 지역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농특산물 꾸러미로 비대면 농촌체험하세요 전남도 '농촌체험키트' 사업

전남도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촌체험키트를 마련, 색다른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1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농촌관광경영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체험활동이 제한된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농촌 체험기회를 제공코자 '농촌체험키트'를 통한 비대면 농촌 체험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촌체험키트는 가정과 학교에서 생태관찰, 만들기 등 농촌체험활동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한 꾸러미로, 고추장·된장·강정 만들기, 환과 과일·허브를 이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반려식물 키우기 등으로 구성됐다.

농촌체험키트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추진중인 비대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농촌관광경영체가 소재한 지역의 농특산물로 체험꾸러미를 조성해 유지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꾸러미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최대 100만원까지, 초·중·고교는 최대 300만원까지 구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참여가 가능한 농촌관광경영체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융복합산업인증업체, 교육농장, 낙농체험목장 등이 해당된다. 전남도는 도내 12개 시·군, 30개 경영체를 체험꾸러미 사업에 참여시켜 지원하고 있다.

전남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키트는 48종이 마련됐으며, 천연비누·방향제 등 생활용품 만들기, 전통 고추장 만들기, 반려식물 키우기, 환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비됐다. 체험키트 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웰촌포털(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하용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농촌관광경영체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색다른 농촌체험으로 학생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우수 어촌계 수산물 판촉행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난 11일부터 4일간 영암축협하나로마트에서 전남 우수 어촌계의 수산물 직거래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흥 산평어촌계(견미역), 여수 안포어촌

계(피조개)·미포어촌계(문어)·금연어촌계(간굴), 보성 군농어촌계(세꼬막), 강진 사초어촌계(낙지), 진도 신기어촌계(활전복), 해남 송호어촌계(전복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어촌계는

이번 행사에서 모두 1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센터는 이달 내에 화순 도곡, 장성 등에서도 전남 우수 어촌계 수산물 직거래 판촉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 전남도, '장성군 으뜸한우 송아지브랜드' 출범 내년까지 10개 시·군 확대

최근 장성 축협 가축경매시장에서 장성군의 '전남 으뜸한우 송아지브랜드' 출범식이 열려 축산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매시장에서는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30마리가 출품돼 일반 수송아지 평균 가격인 375만원 보다 80만원 높은 455만원에 거래됐으며, 최대 528만원까지 거래돼 눈길을 끌었다.

'전남 으뜸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선별함으로써 지역 한우의 차별화 및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전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3년간 고

흥, 강진, 곡성, 화순, 영암, 무안, 장성의 3753호 농가가 참여중이며, 총 4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전남도는 내년 총 10개 시·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인공수정, 백신지원, 사양관리 컨설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으뜸한우 송아지'로 선별된 송아지는 브랜드 표시가 부착되며 지역축협으로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전남 으뜸한우송아지'는 한국축육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등등록우와 유전능력 상위 30%이상, 후대도축 성적이 우수한 개체 중 선형심사 79점 이상인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대상이다. 천자확

인, 질병 유무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선별된 송아지에 브랜드명이 부여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우농가의 소득을 증대 시키겠다"며 "한우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연속으로 대회 최고상인 대통령상(2019년 고흥 박태화 농가, 2020년 영암 김용복 농가)을 수상하는 등 매년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전남 한우의 명성을 입증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농업박물관 농업테마 공원 목포대 농경문화 교육 실습장 제공

전남도 농업박물관은 최근 목포대 고고문화인류학과와 전공 교과 연구 협력을 위해 농업테마공원을 실습장으로 제공했다.

농업테마공원은 지난 2014년 영산호관광지 대규모 간척지(13만8612㎡)에 조성된 곳으로, 논·밭농사, 타작마당, 생태연못, 주말농장, 경관작물원 등 24종의 친환경농업 관찰학습장이 갖춰져 있다.

이 중 벼 한 살이 체험장(8858㎡)은 선사시대 농경문화를 연구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박물관과 목포대는 고고학 전공 학생들의 실험과 연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학생들은 농업테마공원에서 청동기시대의 농기구인 반달돌칼을 이용해 직접 벼를 수확해 보고, 1인당 수확량과 면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선사 농경을 이해하는 좋은 경험을 가졌다.

이번 연구 협력은 목포대 고고문화인류학과와 전공 교과인 '실험고고학과 대중고고학'과 관련된 것이다. 이 교과과정은 선사시대의 기술과 방법으로 농기구를 제작해 가능 및 성능 등을 실험해 보고, 실제 이를 활용한 문화유산 교육 등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영호 과장은 "전남 선사시대 농경문화 연구를 기반으로 고고학 및 문화유산 연구 전문 인력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앞으로도 농업테마공원이 지역 대학생들의 실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외국인 주민 인권·노동 보호 전남도, 법률상담 서비스

전남도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도움을 받지 못한 도내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노동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상담서비스는 '목포이주 외국인상담센터'와 '여수이주센터'를 통해 지원된다. 상담은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무사건을 비롯 가사사건, 인권침해 등 외국인 관련 법적사건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로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고, 찾아가는 출장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스페인어 등 통역도 지원한다. 센터에선 노무사의 전문과 변호사 상담과 함께 고용노동부, 법무부,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센터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결에 앞장서 호응 받고 있다.

실제로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동자 A씨가 회사폐업으로 체불된 한 달분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